

2018. 9. 6(목)~7(금) 중국 상해 통지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상해에서 OECD와 공동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중국 상해 통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건총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의 산업관계자, 정책입안자, 사회과학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 뇌 과학과 신경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뇌 프로젝트’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뇌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새로운 신경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률 체계를 수립하여 혁신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OECD와 뇌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적정책 대안을 주제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2018. 9. 10(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정세균 의원은 6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대표를 역임했다.

정세균 의원은 발제에서 경제와 사회, 환경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시대정신을 담아야 함을 지적하고,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을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헌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결국 오늘의 시대정신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개혁을 통해 실현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 9. 10(월)~12(수) 송도 컨벤시아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및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무역법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2018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법무부, UNCITRAL과 함께 국제 상거래 규범에 대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법무부 박상기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희택 대한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전 세계 국제상거래 분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SDS) 개정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제상거래 규범의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8. 10. 4(목)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한국법제연구원, 기재부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공동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기획재정부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남북관계 등 다양한 재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예산법률 주의 도입방안, 남북경협과 재정의 역할, 재정정보 통합공개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및 국회, 기재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재정에 관한 내용은 국가의 중요한 질서체계 중의 하나로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재정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 10. 5(금)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 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자력 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적 상황에 대비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분야의 법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 10. 12(금)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 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남북교류 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 협력 활성화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법제 자료 축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 10. 12(금)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서강대학교에서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사회학회(회장 이상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신옥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학, 젠더관련 법제 및 법사회학적 분야의 입법평가 관련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논의 주제는 ▲입법평가와 입법이론-과학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역사부정죄 입법안에 관한 평가 ▲시민불복종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다를 것인가? ▲입법과 시민참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2018. 10. 26(금)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법제 개선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혁신적·포용적 성장과 중소기업법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벤처·혁신 창업기업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핵심경제정책 방향인 혁신적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분야의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학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실장이 '차등의결권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충남대학교 정응기 교수가 '중소기업 업종보호법제와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2세션은 국세청 차상진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부연구위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2018. 10. 31(수)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
**한국법제연구원,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31일(수) 밀레니엄 힐튼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공동 개최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우툰툰우(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전문가회의에서 '행정절차법제 관련 아시아 각국의 법제화 노력 개관'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 법제 현황 ▲대한민국 행정절차 법제의 발전과정을 논의했다. 이어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전략'을 주제로 공론화위원회와 및 국민청원 관련 사례와 법제화 쟁점에 대해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8. 11. 16(금)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아-태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법제 동향 공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더 플라자호텔에서 '아태지역 기후변화 법제 및 정책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제7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컨퍼런스는 총 2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호주·중국·인도네시아·뉴질랜드의 기후변화 전문가가 2세션에서는 태국·미국·한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국가별 기후변화 법제 및 정책의 최근동향을 발표했다. 발제 세션이 끝난 뒤에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참여하는 랩업(Wrap-up)세션이 진행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컨퍼런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교류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 11. 23(금) 서울 플라자호텔 오크룸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법인 헌법과 민법, 형사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법적 준비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등 북한법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 논의 주제는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헌법·형사법·민사법의 변화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남북협력 시대를 개막하면서 북한법제는 더 많은 개방성과 법치주의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에 북한법을 제대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면 남북의 평화는 제도적 기반위에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